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사교육비 경감과 대학입시제도 개혁



김왕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현학적인 목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여야 한다. 대학입시제도에서 수능과 내신은 양대 축에 해당한다. 수능 범위를 줄이고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고교 내신의 신뢰성을 높이고 변별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19 대학교육협의회의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 이틀에 걸친 대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 현 정부의 정책의 지가 담긴 핵심적인 내용은 수능을 난이도에 따라 A, B형으로 이원화 하고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위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개편의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 완화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이다. 그 이유는 자율형 사립고 등 자율과 경쟁 위주의 정책들이 사교육비 유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수능의 70%를 EBS 교재에서 출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림피아드 등 경시대회 입상 실적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이번 수능제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육 문제에는 풍선효과가 있다. 한 쪽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과 함께 다른 문제가 돌출된다. 그래서 교육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차원의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다소 정치적이고 포퓰리즘에 가까운 목표에 매진하다 보면 보다 근본적인 목표인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교육비 정책을 포함한 교육정책은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베이비 붐버 세대'인 50대 전후 세대가 학교 다니던 시기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너무나 다르다. 교육에 몰입하는 핵가족 시대, 70년대 20%에 불과하던 대학진학률이 82%에 이를 정도로 입시경쟁 심화, 소득 증가로 교육비 최우선 지출 경향 등 생활 여건 변화는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에게 자녀 교육은 거의 필수불가결의 기본적 욕구에 가깝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자녀 교육비에 우선 투자한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높은 수능 점수를 얻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정부가 무슨 방법으로 막는단 말인가?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는 미미하고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수능개편안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먼저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 살펴보자.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첫째, 국·영·수 중심으로 난이도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누는 것, 둘째, 난이도가 높은 B형은 최대 두 과목만 응시하도록 한 것, 셋째,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한 과목씩만 보도록 했다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최우수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상식적으로 국·영·수 우수자는 우수한 학생으로 통한다. 모든 대학들은 A형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B형 수능에서 고득점한 자를 선호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함께 상승작용을 한다면 국·영·수 위주의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확대되고 선행학습을 위한 사

교육비는 증가할 소지가 많다.

더 큰 문제점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영·수 부담은 계속되고 과학탐구, 사회탐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경우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이 왜곡될 수가 있다.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국·영·수 위주로 하고 국사와 예체능 과목 등은 형식적으로 운영할 때 전인교육과 공교육 정상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 현학적인 목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여야 한다. 대학입시제도에서 수능과 내신은 양대 축에 해당한다. 수능 범위를 줄이고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고교 내신의 신뢰성을 높이고 변별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고교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없애고 대학은 입학사정 자료로 내신을 우선 반영하는 방안에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발 주체인 대학과 교육 주체인 고교 담당자들의 의견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교과부가 교육감 협의회 또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행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추석물가 '뿔뿔질'에 대책은 '제자리 걸음'

올 여름 불볕더위와 잦은 비로 각종 식품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었던 데 덮친 격으로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추석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8월 물가 동향에 따르면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값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20.0%나 폭등했다. 특히 무는 126.6%, 마늘 85.0%, 수박 72.6%, 배추 35.9% 등 주요 장바구니 물가는 뛰는 정도를 넘어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매년 나오던 각 부처의 물가인정 임시 방편을 종합해 놓은 데다, 실제 물가 상승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상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석이 접니다'는 서민들의 한숨이 결코 업살이 아닌 것이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정부는 2일 부랴부랴 '추석 민생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민생 안정방안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매년 나오던 각 부처의 물가인정 임시 방편을 종합해 놓은 데다, 실제 물가 상승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지자체 '비만청사' 몸집 줄여야

광주와 전남도를 비롯한 12개 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 청사가 행정안전부의 면적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비만청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도 본청은 면적 기준보다 57.2%를 초과했고, 광주시 역시 31.7%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면적 기준보다 5.4%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의 '비만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 광주시의회의 무려 135.6%나 초과했으며 동구의회(87.0%), 광양시의회(88.3%), 전남도의회(45.3%), 여수시의회(40.4%), 화순군의회(41.4%), 함평군의회(28.8%), 영암군의회(27.7%) 등 9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비만청사'는 건축비 과다와 관리비 증가 등 재정 부담과 직결된다.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도 호화청사 신축에 따른 탓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하다. 그런데도 비만청사가 12곳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43.2%이고 전남도 역시도 단위 중 가장 낮은 11.5%에 불과하다. 여수시는 지난 2008년 결산 기준으로 3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광주 동구와 함평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화순, 영암군은 재정자립도가 10%대 수준이다.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의 지시대로 청사 초과 면적을 1년 안에 공사·공단 등에 임대하거나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도 큰 부담이지만 재정의 비효율성과 주민들에게 던지는 위협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파탄난면 결국 그 고통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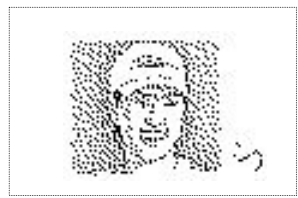
며칠전 미셀위가 미 LPGA 캐나다오픈에서 우승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LPGA 통산 2승째이지만 이번 우승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우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프로골프 대회는 통상 4일 동안 하루 18홀씩 경기를 하는데 4일 내내 1위를 지키며 우승을 했다는 얘기가. 그만큼 기록이 없는 플레이를 해 정신포로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2승째를 올렸다는 점도 LPGA에서의 안정적인 활동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프로무대에서 2승을 거두기까지 그녀의 여정은 험난했다. '천재 소녀'로 불리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12월 첫 우승을 기념해 강행과 긴 슬럼프, 각종 구설에 오르며 등 그동안 찬사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컸다. 하와이에서 태어나 4세때 처음 골프를 시작한 미셀위는 10세때 64타를 치며 우승하는 등 주니어 시절, 주요 대회마다 '최연소'의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2003년에는 US여자아마추어 퍼블리킹 크스펠오픈십 최연소 우승으로 '여자 타이거 우즈'라는 극찬을 받으며 골프계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고, 2005년 10월 프로로 전향하면서는 나이키 등과 1000만달러에 달하는 후원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거듭 출전한 남자대회에서의 부진한 성적으로 '1000만 달러 천재 소녀'라는 찬사는 '무늬만 우즈'라는 비아냥으로 바뀌었다.

이런 아픈 기억 때문에 이번 우승이 특별한 의미를 다가온다. 더구나 미셀위는 할아버지 고향인 장흥과도 인연을 맺고 있다. 장흥군은 미셀위의 이름을 따 '미 Shall We'라는 공동 브랜드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아픈 기억 때문에 이번 우승이 특별한 의미를 다가온다. 더구나 미셀위는 할아버지 고향인 장흥과도 인연을 맺고 있다. 장흥군은 미셀위의 이름을 따 '미 Shall We'라는 공동 브랜드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미셀위



고, 그녀는 지난해 12월 첫 우승을 기념해 1억원을 장흥지역 불우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이번 캐나다오픈처럼 합성 출신 신지애와 함께 우승 다툼을 벌이는 미셀위의 모습을 더 자주 볼 것 같다. 그만큼 고향 사람들의 기쁨도 커질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중고칼럼



조영대

요즘 태풍에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피해가 이곳저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 당연히 4대강 사업에도 적지 않게 피해가 생겼을 것인데 신문지상에서나 TV 어느 채널에서도 4대강 사업의 비 피해,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가 없다.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두세 개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현 정부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장악을 당하고 있는지, 그 중요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언론매

서 혐의농성을 하는 환경운동가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가슴이 저며 온다. 현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독일 환경전문가 알베르트 라이프 교수가,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보물 막고 수문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 '복원'이나 '살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선동 행위라 불러 마땅하다"고 비판했듯이, 한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신념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의 생태계가 저토록 파괴되고 있는데도 정

기고



강춘석

2010년 8월 29일은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조약이 공포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1897년~1910년)이 강제로 일본에 편입되었던 경술국치로부터 100년이 흘렀다.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강제병합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은커녕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우기는 상황이 분하기만 하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 6·25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선양사업을 활성화하고, 남은 삶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정중한 예우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관계 회복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책무가 우리 후손들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일제강점의 근거가 된 한일강제병합 조약이 한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맺어진 것이라는 불법성과 역사적 사실을 일본은 인정해야

매천 황현선생 순국 의미 잊지말아야

매우 뜻 깊은 해이다. 특히 광양에서 태어나 조선 후기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그 기개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매천 황현 선생이 한일 강제병합에 울분을 토하고 순국한지도 100년이 됐다. 선생께서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당하자 그 해 9월 10일, 자결로써 우리 국민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빛나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 된 자격으로서 100년 경술국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독립유공자가 168명이 생존해 계신다. 이제 대부분 고령이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줬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분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이 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한다. 그리고 국권침탈의 희생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던 일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정중한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개인의 이익도구로 삼은 매국노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판단도 내려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수많은 호헌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으로 이룩된 나라이다. 단기간 내에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고, 그 과정 중에 수많은 갈등으로 분열된 사회를 순국선열들이 보여준 '위국헌신'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국민통합을 이루어 낸다면, 이 땅에 제2의 경술국치는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보다 몇 배 더 강하고, 더 큰 대한민국이 되어 있으리라 확신한다. <순천보훈지청장>

시중은행 카드 판촉 경쟁 자제를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 거래한지가 몇 년이나 돼서 이미 내가 그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고 있다고 말하면 내 가족 누군가에게 부탁해 가족 카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니 안해줄수도 없다.

한번은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요청하는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버린 카드가 1년에 10개는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니 은행원들도 이것이 실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면서 제발 하나만 부탁한다고 사정해서 또 하나를 만들었다.

나중에 집으로 도착한 신용카드들은 그 즉

시 가위로 갈기갈기 찢겨 버렸다. 이렇게 낭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신용카드 제작비용은 전부 은행의 소모성 경비로 지출될 것이며 그 부담도 결국 고객들이 지는 것이 아닌가.

직원을 동원해서 그런 카드 만들기 경쟁을 하는거야 회사 맘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신용카드를 남발할 경우 국민에게 빛고 사는 규모를 늘리라는 꼴이며, 그것이 개인들의 신용상태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나 큰 은행들의 카드 판촉 경쟁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김덕용·광주시 북구 옹동동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 '암담'

최근 방송에서 나오는 보도를 들어보니 2010학년도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낸 고등학교 10위까지는 모두 특목고이고 20위권 안엔 서울 강남의 인문계 고등학교들이 독차지했다고 한다.

명품 유치원-영재센터-특목고-명문대 입학-대기업 입사,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부유층 자녀의 교육 코스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었다. 그래서 서민들은 돈 몇만원을 아끼기 위해 돈이 적게 드는 공립 유치원에 보내려고 학기

초에는 새벽부터 줄서기를 한다. 부유층 사람들은 유치원도 사립 명품 유치원을 보낼 뿐 아니라 그 외에 취학 전부터 1달에 100만 원이 넘는 영어전문 학원을 보낼 정도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잘사는 집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일이 공산품 돼버렸다. 빈부 격차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결정되고 그것이 삶의 질과 사회적 계급으로 이어지고, 또 학력이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암담하기만 하다.

▲남보라·광양시 도이동